

미국 노년여성의 신체 만족도 및 의복 중요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Body Satisfaction and Clothing Consciousness among American Women between the Ages of 60 and 90

정명숙*
한경대학교 의류산업학과

Myoung Sook Jung
Dept. of Clothing Industry, Hankyong Univ.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elderly American women's body satisfaction and clothing consciousness with the methods of survey and body measurement. To that end, I first investigated their self-perception of body size and body satisfaction and also the relationships between those, along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body measurements and body satisfaction. Then, I analyzed the differences in elderly women's body satisfaction and clothing consciousness among different body type groups. For the last, I examined the degree of their body thinness or obesity and ideal body size in order to explore the standard for ideal body shape among elderly women.

Elderly American women were satisfied with most of their body parts except waist circumference and weight. Body satisfaction with stature, weight, and hip circumference was correlated to both size perception and body measurement. Body satisfaction with thigh circumference and leg length was correlated to size perception, and also that with waist circumference and neck length to body measurement. Size perception showed differences among body types, but body satisfaction did not show notable differences among body typ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real size and ideal one. Elderly American women thought that clothing was important in their everyday life.

Key Words : elderly American women, body satisfaction, clothing consciousness, body type, self-perception of body size

I. 서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아는 신체의 형태 특성과 관련되어 형성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신체적 결점을 의복으로 보완하려 하고, 또는 그 장점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명숙(2000)은 여대생의 신체만족도와 의복 중요도에 관한 연구에서 여대생들은 대체로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는 불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자신의 의복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이것은 여대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신체적 결함을 의복을 통하여 보완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노년여성들도 과거와는 달리 사회활동 기회가 증가되면서 그들의 사회활동에서 차지하는 의복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진행됨에 따라 모든 산업분야에서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의류학분야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레포트월드, 2004). 편안하고 아름다운 노인의복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경화(1996), 김인순, 성화경(2002), 김희숙(2002) 등의 노인체형에 대한 연구와 남윤자, 유희숙(1996) 등의 노인 의복착용실태 연구, 정혜원, 김구자(2002) 등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등이 있고, 신체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는 박재경 등(2002)의 연령과 비만도에 따른 신체만족도에 관한 연구와 이영주(2003)의 60대 남녀노인의 신체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가 있다. 박재경 등(2002)은 우리나라 노인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보통 이상으

* Corresponding author: Myoung Sook Jung
Tel: 031) 670-5363, Fax: 031) 672-3097
E-mail: chums@hknu.ac.kr

로 만족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영주(2003)는 60대 여자는 남자보다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신체만족도에 관한 미국 내 연구는 주로 심리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오고 있다. Hayes 등(1999)과 Russell(2002)은 자기평가가 신체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Wade(2000)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체부위에서 성차를 보이지만 남녀 모두에게서 자기평가와 신체만족도 간에 상관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Furnham 등(2002)은 신체만족도와 자기평가 간의 상관관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자신의 신체에 더 만족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연구에서도 의복과 관련한 신체만족도에 관한 연구와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노년여성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체측정을 통하여 노년여성의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노년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부여하는 의복에 대한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과는 노년여성들에게 심리적 만족을 줄 수 있는 의복 착장 방법뿐만 아니라 의복원형 제작 및 의복 디자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내용

첫째, 노년여성의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를 파악하고, 신체 크기에 대한 인식과 신체만족도와의 상관관계 및 신체측정치와 신체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노년여성의 체형집단별 크기 인식, 신체만족도 및 의복중요도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셋째, 자신의 신체에 대해 평가한 수척/비만의 정도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치수를 살펴봄으로써 노년여성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체형의 기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미국 플로리다 탈라하시(Tallahassee, Florida, U.S.A)에 거주하는 60세~90세 노인 여성이었고, 신체에 대한 인식이 인종 간에 차이가 있다는 Altabe(1996)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백인노년 여성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00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Tallahassee Senior Center, Woodmont Assisted Living, Harbor Chase Assisted Living Community에서 설문조사와 인체측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33명의 자료 중에서 연구 목적에 부적합한 3명의 자료를 제외한 30명의 자료를 통계처리하였다.

3. 설문조사

설문지는 자신의 체형에 관한 인식 및 만족도 항목과 신체의 수척/비만에 대한 인식 및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치수 항목, 의복중요도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의복중요도에 관한 설문은 민동원(1986)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였다. <Table 1>에 설문지의 구성 내용을 나타내었다. 설문은 신체 크기와 만족도에 관한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다~크다', '불만스럽다~만족스럽다' 등의 5점 척도로 '✓' 표시하게 되어 있어 연구대상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읽고 답하기 어려울 때는 연구자가 설문을 읽어 설문에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설문조사에 걸린 시간은 10~15분 정도였다.

<Table 1> Composition of the questionnaire

Sections	The number of question	Answering format
Self-perception of body size	17	Five-point scale
Body satisfaction for each body part	17	Five-point scale
Degree of body thinness or obesity	3	Five-point scale
Ideal body size	5	Record of ideal body size
Clothing consciousness	6	Five-point scale

(Table 2) Body measurements list

Body measurements	Body measurements	Body measurements
1. Neck base circumference	10. Minimum Leg circumference	19. Stature
2. Bust circumference	11. Neck length	20. Cervical height
3. Waist circumference (navel)	12. Waist front length (navel)	21. Crotch height
4. Hip circumference	13. Interscye, front	22. Biacromial breadth
5. Upper arm circumference	14. Arm length	23. Weight
6. Fore arm circumference	15. Outside leg length	Date of Birth (/ /)
7. Wrist circumference	16. Waist back length (navel)	
8. Thigh circumference	17. Interscye, back	
9. Calf circumference	18. Crotch length (navel)	

4. 인체측정

인체측정항목은 둘레항목, 길이항목, 높이와 너비항목 및 몸무게 항목의 총 23항목(<Table 2> 참조)이었다. Martin 인체측정기로 ISO와 KS 인체측정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 정도였다.

인체측정항목을 최소화하여 측정시간을 줄이고, 측정 환경을 편안하게 설정함으로써 인체측정 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신체적인 피로와 심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험자가 신체적인 또는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낄 때는 언제든지 설문이나 측정을 그만 둘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III. 연구결과

1. 신체부위별 크기 인식과 만족도

노년여성의 신체 17개 부위에 대한 측정치 및 크기 인식과 만족도에 대한 평균과 편차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신체부위별 크기 인식 평균은 2.53~3.53의 분포를 보이고, 엉덩이둘레(3.53)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넓다리둘레(3.38)와 허리둘레(3.33)를 보통보다 다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body measurement, size perception and body satisfaction

Body measurements	Body Measurement (cm, kg)		Size Perception		Body Satisfaction	
	Mean	S.D	Mean	S.D	Mean	S.D
Neck circumference	38.28	2.29	2.67	0.76	3.60	1.28
Bust circumference	96.42	9.71	2.80	0.81	3.47	1.17
Waist circumference	85.63	10.47	3.33	0.76	2.60	1.43
Hip circumference	103.22	10.75	3.53	0.82	2.63	1.43
Upper arm circumference	28.44	4.09	3.23	0.77	3.47	1.28
Fore arm circumference	22.56	2.29	3.03	0.67	3.60	1.10
Wrist circumference	15.47	1.17	2.53	0.78	3.73	1.05
Thigh circumference	57.85	6.75	3.38	0.82	3.10	1.47
Calf circumference	33.69	2.94	3.24	0.74	3.57	1.22
Ankle circumference	20.75	1.93	2.90	0.80	3.70	1.18
Biacromial Breadth	34.60	1.88	3.00	0.79	3.77	1.17
Stature	156.92	6.16	2.80	0.96	3.60	1.30
Neck length	6.93	1.15	2.86	0.83	3.70	1.24
Arm length	55.38	2.67	2.97	0.81	3.87	1.20
Leg length	100.96	5.28	2.73	0.94	3.80	1.24
Trunk length	64.50	3.03	2.77	0.86	3.70	1.29
Weight	61.68	11.62	3.03	0.96	2.97	1.65

소 크다고 생각하였다. 키(156.92cm)에 대한 몸무게(61.68kg)의 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키(2.80)는 보통보다 조금 작다고 인식하고 있고 몸무게(3.03)는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체부위별 만족도 평균은 2.60~3.87의 분포를 보이고, 허리둘레(2.60)와 엉덩이둘레(2.63)는 보통보다 조금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부위에서 보통보다 조금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 노인 여성이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를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보통 이상의 만족을 나타낸 결과(박재경 등, 2002)와는 차이를 보인다. 또 여대생이 대체로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불만족하는 경향(정명숙, 2000)과도 다른 결과이다.

2. 크기 인식 및 측정치와 만족도와의 관계

신체부위별 크기 인식과 만족도와의 관계 및 신체측정치와 만족도와의 관계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신체부위별 크기 인식과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둘레항목과 몸무게가 부적 상관을 보여 둘레가 작다고 인식할 때, 몸무게가 가볍다고 인식할 때 만족함을 알 수 있고, 특히 엉덩이둘레(-0.388)와 넓다리둘레(-0.432) 및 몸무게(-0.584)는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 그러나 가슴둘레는 낮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데 이것은 다른 둘레항목과는 달리 가슴둘레는 작다고 인식할 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국 노인여성이 가슴크기가 작다고 인식할수록 만족한다(박재경 등, 2002)는 결과와는 다르나, 한국 여대생이 가슴둘레가 크다고 인식할수록 만족한다(정명숙, 2000)는 결과에 가깝다. 키(0.540)와 다리길이(0.452)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크고 길다고 인식할수록 만족함을 알 수 있다.

실체측정치와 만족도의 상관은 허리둘레(-0.443)와 엉덩이둘레(-0.431) 및 몸무게(-0.516)에서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키(0.440)와 목길이(0.405)에서 정적 상관을 보인다. 가슴둘레항목(-0.281)의 경우 다른 둘레 항목의 상관과 마찬가지로 낮은 부적 상관을 보이는데 이것은 신체부위별 크기 인식과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보인 상관과는 차이가 있으며, 실체측정치가 연구대상자의 가슴둘레 평균 보다 작은 사람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 몸무게, 엉덩이둘레 항목은 신체만족도가 크기 인식과 실체측정치 둘 다에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넓다리둘레와 다리길이 항목에서는 크기 인식과 상관을 보이고, 허리둘레와 목길이 항목에서는 실체측정치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을 보인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였으나, 신체만족도가 크기 인식과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ize Perception and Body Satisfaction as well as Body Measurement and Body Satisfaction

Body measurements	Correlation	
	Size Perception -Body Satisfaction	Body Measurement -Body Satisfaction
Neck circumference	0.214	0.234
Bust circumference	0.066	-0.281
Waist circumference	-0.350	-0.443*
Hip circumference	-0.388*	-0.431*
Upper arm circumference	-0.323	-0.290
Fore arm circumference	-0.122	-0.204
Wrist circumference	0.011	-0.047
Thigh circumference	-0.432*	-0.301
Calf circumference	-0.150	-0.245
Ankle circumference	-0.215	-0.277
Biacromial breadth	0.338	0.281
Stature	0.540**	0.440*
Neck length	0.230	0.405*
Arm length	0.209	-0.002
Leg length	0.452*	0.124
Trunk length	0.090	0.185
Weight	-0.584*	-0.516**

*significant at $P \leq 0.05$, **significant at $P \leq 0.01$

실체측정치 중 어느 한쪽에서 두드러진 상관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것은 신체만족도는 실제 신체측정치보다 자신이 인식하는 크기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한 박재경 등(2002)과 이영주(2003)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3. 체형에 따른 크기 인식 및 만족도

1) 비만/수척 정도에 의한 체형분류

체형을 비만/수척 정도에 의해 분류하기 위하여 Röhler 지수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Röhler 지수가

1.2 미만이면 수척, 1.2~1.5는 정상, 1.5 이상은 비만 체형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Röhrer 지수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기준이 달라져야 하며, 연구자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한다. 박재경 등(2002)이 Röhrer 지수 1.2 미만을 수척, 1.7 이상을 비만 집단으로 노인체형을 분류하였을 때 수척집단에 포함된 노인의 백분율이 2.8%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체형 분포율의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Röhrer 지수 1.4 미만을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으로 분류하고 1.4 이상, 1.7 미만을 평균 체형, 1.7 이상을 상대적으로 뚱뚱한 체형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노인의 비만/수척 분포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 Distribution of body type

Body type	Mean of Röhrer index	The number of persons	Percent(%)
Thin	1.23	7	23.3
Average	1.57	15	50.0
Fat	1.96	8	26.7

2) 체형에 따른 크기 인식과 만족도

체형별 크기 인식에서 대부분의 둘레 항목과 몸무게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는 반면, 키와 길이 항목에서는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비만과 수척, 즉 신체의 횡적크기를 평가하는 Röhrer 지수에 의하여 체형이 분류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특히 허리둘레와 몸무게에 대한 크기 인식은 $P \leq 0.01$ 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대부분의 둘레 항목에서는 비만 집단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는데 반하여 키와 길이 항목에서는 평균 체형 집단이 가장 크거나 길다고 인식하고 있다.

체형별 만족도에서는 비만 체형이 허리둘레와 몸무게 항목에서 만족도가 현저히 낮고 엉덩이둘레 항목에 대한 만족도도 낮다. 그러나 그 이외의 항목들에서는 체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비만/수척에 대한 인식은 $P \leq 0.01$ 수준에서 체형별 차이를 보인다. 전신과 상반신에 대한 인식은 세 집단 간에 모두 차이를 보이는데, 하반신에 대한 인식은 평균 체형 집단과 상대적으로 뚱뚱한 체형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평균 체형 집단은 Röhrer 지수 평균이 1.57이지만 전신과 상반신에 대한 비만/수척 정도를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비만/수척 정도에 의하여 체형을 분류할 때 본 연구가 적용한 Röhrer 지수의 기준이 타당함을 뒷받침한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만해지고 비만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있다. 또 세 집단 모두 전신과 상반신보다 하반신에 대하여 뚱뚱하다고 인식한다.

<Table 6> The differences in size perception and body satisfaction according to body type

Body measurements	Size Perception				Body Satisfaction			
	Thin	Average	Fat	F-value	Thin	Average	Fat	F-value
Neck circumference	2.14	2.73	3.00	2.816	3.43	3.53	3.88	0.256
Bust circumference	2.71	2.80	2.88	0.070	3.57	3.67	3.00	0.881
Waist circumference	2.71	3.33	3.88	5.835**	3.14	3.00	1.38	5.203*
Hip circumference	2.86	3.60	4.00	4.678*	3.29	2.80	1.75	2.638
Upper arm circumference	2.43	3.53	3.37	7.206**	3.57	3.40	3.50	0.043
Fore arm circumference	2.43	3.20	3.25	4.707*	3.43	3.67	3.63	0.107
Wrist circumference	2.14	2.47	3.00	2.661	3.57	3.87	3.63	0.234
Thigh circumference	2.67	3.53	3.63	3.381*	3.29	3.20	2.75	0.302
Calf circumference	2.50	3.40	3.50	4.931*	3.43	3.87	3.13	1.019
Ankle Circumference	2.29	3.00	3.25	3.411*	3.57	4.00	3.25	1.119
Biacromial breadth	2.29	3.27	3.13	4.858*	3.43	4.20	3.25	2.310
Stature	2.86	2.87	2.63	0.171	3.57	3.53	3.75	0.070
Neck length	3.00	3.00	2.50	1.046	3.43	3.87	3.63	0.305
Arm length	2.71	3.13	2.88	0.696	3.43	3.93	4.13	0.664
Leg length	2.57	2.87	2.63	0.290	3.43	3.80	4.13	0.569
Trunk length	2.71	3.00	2.38	1.443	3.71	3.73	3.63	0.018
Weight	2.14	3.00	3.88	9.641***	3.71	3.40	1.50	5.873**

*: significant at $P \leq 0.05$, **:significant at $P \leq 0.01$

(Table 7)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thinness or obesity according to body type

Body part	Body type			F-value
	Thin	Average	Fat	
The whole body	2.57	3.27	3.75	6.943**
The upper of the body	2.14	3.20	3.50	7.851**
The lower of the body	2.71	3.73	3.75	6.417**

*significant at $P \leq 0.05$, **significant at $P \leq 0.01$

4. 노년여성의 이상치(Ideal Size)

노년여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치수와 실제측정치와 차이를 <Table 8>에 제시하였으며, Paired t-Test 시에 1~2명의 missing value 때문에 실측치는 Table 1.의 값과 근소한 차이가 있다. 5항목 모두에서 실측치와 이상치 간에 차이를 보이며,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및 몸무게 항목의 이상치가 실측치보다 작지만 노인여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치수는 성인여성의 이상치에 비하여 다소 큰 값을 알 수 있었다.

(Table 8) Comparison between real size and ideal size

Body Part	Real Size	Ideal Size	t-value
Bust circumference	96.68	89.08	3.707***
Waist circumference	85.71	71.57	7.685***
Hip circumference	103.14	93.10	5.281***
Stature	157.14	164.72	-9.383***
Weight	62.72	57.15	3.772***

***significant at $P \leq 0.001$

5. 의복중요도

의복중요도에 대한 생각은 체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6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빈도분석하여 <Table 9>에 나타내었다. 의복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도의 평가에서 첫 번째 평가문항인 의복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다'의 1점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의 5점까지로 평가한 결과 평균 2.20을 나타내었다. 응답자의 60%가 의복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다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1명을 제외한 96.7%의 응답자가 의복이 그들에게 보통이상의 중요도를 가진다고 답하였다. 또한 '전혀 중요하지 않다'

(Table 9) Clothing consciousness

N(%)

Question	Frequency					Mean	S.D
	Very important	More or less important	Average	Not very important	Not important at all		
How important to you is dress?	7(23.3)	11(36.7)	11(36.7)	1 (3.3)	0 (0.0)	2.20	0.84
What do you want other people to think about your dress?	1 (3.3)	7(23.3)	10(33.3)	11(36.7)	1 (3.3)	3.13	0.94
How often do you think other people evaluate you based on your dress?	2 (6.7)	8(26.7)	15(50.0)	3(10.0)	2 (6.7)	2.83	0.95
How do you think your dress compares to that of your peers?	0 (0.0)	3(10.0)	9(30.0)	17(56.7)	1 (3.3)	3.53	0.73
Do you stop wearing some of your clothes when you believe that are out of fashion?	2 (6.7)	6(20.0)	15(50.0)	5(16.7)	2 (6.7)	2.97	0.96
Do you stop wearing some of your clothes when you grow tired of them?	2 (6.7)	7(23.3)	14(46.7)	6(20.0)	1 (3.3)	2.90	0.92

에 응답한 노인은 없었다. 이것은 여성노인들도 의생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두 번째로 자신의 의복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가에 대하여는 '그 그룹에서 제일 잘 입는 사람'의 1점에서 '보통보다 못한 정도'의 5점까지로 평가하여 평균 3.10을 나타내었으며 '가장 잘 입는 사람', '잘 입는 사람' 중의 하나와 '보통보다 조금 나은 정도'에 60.0%의 빈도를 보여 자신의 의복을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기를 바랐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보고 얼마나 자주 자신을 평가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는 '항상'의 1점에서 '전혀 안함'의 5점까지로 평가하여 평균 2.83를 나타내었으며 '꽤 자주'와 '가끔'에 76.7%의 빈도를 보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할 때 의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옷을 다른 사람의 옷과 비교하여 '누구보다도 낫다'의 1점에서 '보통보다 못하다'의 5점까지로 평가한 결과 평균 3.53을 나타내었다. '대부분보다 낫다', '보통보다 낫다', '보통이다'에 96.7%가 응답한 것으로 보아 자신의 의복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문항인 옷을 입지 않거나 버릴 때 유행이 지나서 그러는 편인가, 실증을 느껴서 그러는 편인가에 대하여는 '항상 그렇다'의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까지로 평가한 결과 평균 2.97과 2.90을 나타내었다. 두 문항 모두에서 '때때로 그렇다'와 '자주 그렇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별로 그렇지 않다'에도 높은 빈도를 보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인체측정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미국 노년여성의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와 관계를 분석하고, 미국 노년여성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치수를 조사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의복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신체크기 인식에서 엉덩이둘레를 가장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넓다리둘레와 허리둘레도 굵다고 생각하였다. 가슴둘레 크기 인식은 대부분의 몸통부위둘레 크기 인식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 키와 팔, 다리길이 등 수직크기 인식은 수평크기 항목인 둘레 항목보다 낮게 나타났다. 신체부위별 만족도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보통보다 약간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부위에서 보통보다 약간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부위별 크기 인식과 만족도와 관계는 대부분의 둘레항목이 작다고 인식할 때 만족하지만, 가슴둘레는 다른 둘레항목과는 달리 낮은 정적 상관관을 보인다. 키와 길이 항목은 크고 길다고 인식할수록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측정치와 만족도의 상관관은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및 몸무게에서 높은 부적 상관관을 보이고, 키와 길이항목에서 정적 상관관을 보인다. 그러나 신체만족도가 크기 인식과 실제측정치 중 어느 한쪽에서 두드러진 상관관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체형에 따른 크기 인식에서 대부분의 둘레항목과 몸무게항목에서 차이를 보이는 반면, 키와 길이 항목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체형별 만족도에서는 비만 체형이 허리둘레, 몸무게, 엉덩이둘레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외의 항목들에서는 체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형에 따른 비만/수척에 대한 인식은 전신과 상반신에 대하여는 세 집단 간에 모두 차이를 보이며, 세 집단 모두 전신과 상반신 보다 하반신에 대하여 뚱뚱하다고 인식하였다.

노년여성의 실측치와 이상치 간에는 차이를 보이며, 의복에 대해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도의 평가에서는 체형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평가 문항들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여성노인들이 의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의복을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기를 바랐으며, 자신의 의복에 대한 자신의 평가도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할 때 의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미국 노인 여성들은 대체로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만족하며 자신의 의복에 대하여도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젊은 여성들이 대체로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는 불만족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신체적 결함을 의복을 통하여 보완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경향과는 다른 결과로 보인다.

주제어 : 미국 노년여성, 신체만족도, 의복중요도, 체형, 신체크기 인식

참고 문헌

- 김경화 (1996) 노년기 여성체형의 자세 및 실루엣. 대한가정학회지, 34(2), 183-199.
 김인순, 성화경 (2002) 노년기 여성의 체형유형화에 관한

-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1), 27-38.
- 김희숙 (2002) 의복설계를 위한 농촌지역 노년기 여성의 체형 및 기성복 만족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2), 169-175.
- 남윤자, 유희숙 (1996) 노인계층의 의복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I. *한국의류학회지*, 20(6), 962-974.
- 레포트월드 (2004.11) 국내·외 의류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노인대상 연구 분석 연구. 자료검색일 2005, 10. 28, 자료출처 <http://www.reportworld.co.kr>
- 민동원 (1986) 기성복의 구매 및 사용 시 불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경, 남윤자 (2002) 노년 여성의 신체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령 및 비만도에 따른 신체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8), 1186-1195.
- 이영주 (2003) 60대 남녀노인의 신체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9), 1072-1080.
- 정명숙 (2000) 여대생의 신체 만족도 및 의복 중요도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학생생활연구*, 7, 69-88.
- 정혜원, 김구자 (2002) 노년여성의 내의 구매행동- 착용 및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5), 737-747.
- Altabe, M (1998) Ethnicity and body image :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23(2), 153-159
- Furnham, A, Badmin, N, Sneade, I (2002) Body image dissatisfaction: Gender differences in eating attitudes, self-esteem, and reasons for exercise. *The Journal of Psychology*, 136(6), 581-596.
- Hayes, SD, Crocker, PRE, Kowalski, KC (1999) Gender differences in physical self-perceptions, global self-esteem, and physical activity: Evaluation of the physical self-perception profile model. *Journal of Sport Behavior*, 22(1), 1-14.
- Russell, WD (2002) Comparison of self-esteem, body satisfaction, and social physique anxiety across males of different exercise frequency and racial background. *Journal of Sport Behavior*, 25(1), 74-90.
- Wade, TJ, Cooper, M (1999) Sex differences in the links between attractiveness, self-esteem and the bo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7(6), 1047-1056.

(2005. 11. 30 접수; 2006. 01. 16 채택)